

홍유릉(洪裕陵)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김흥년* · 심우경** · 최중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 *** 배재대학교 생명환경디자인학부

A Study on the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Tombs Hongneung and Yureung

Kim, Heung-Nyeon* · Sim Woo-Kyung** · Choi, Jong-Hee***

*Tangible Cultural Heritage Bureau,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Environmental Design and Urban Horticultural Science,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on Hongneung and Yureung(royal tomb) in Namyangju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oriental philosophy including Feng-Shui theory. To do this, we studied in two ways;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s and photographing research materials about the form of physical structure and review of historical document. The result of analysis in sight of the location and spatial structure was good matched. Main finding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location and landscape structure was characterized by the harmony with natural following traditional thinking and the Korean view of nature, while maintaining the dignity of the King. The spatial organization were placed in a straight line following the hierarchy of metaphysics by order of Neungchim(Tombs Vicinity) - Changmyungdeung(Stone Lantern) - Chungjakak(Pavilion) - Hongsalmun(Gate for Heavenly Gods) and was based on the Confucianism value, the natural contour and inner value. Through this study, we find the principles made it possible to re-evaluate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provided us with new ways to conserve nature with the help of environmental theory.

Key Words: Chosun Dynasty, Royal Tomb, Landscape Structure, Feng-Shui

1. 서론

홍유릉(洪裕陵)은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황제(高宗皇帝)와 비 명성황후(妃 明成皇后)의 무덤인 홍릉(洪陵)과,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원비 순명 효 황후(元妃 純明孝皇后), 계비 순정 효 황후(繼妃 純貞孝皇后)의 무덤인 유릉(裕陵)을 의미한다. 특히, 홍·유릉은 조선시대 기본능제(基本陵制)¹⁾와 다른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1897년 10월(光武元年)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과 순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왕릉 구조 역시 중국 명태조의 효릉의 능설제도(陵設制度)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조선시대 왕릉²⁾ 중에 유일한 황제 묘제(墓制)이다. 이에 조선시대 능원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사상 및 시대별 특징, 건조물, 석물, 식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되는 바, 입지 및 공간구성의 경우 목을 수(1988), 한국문원(1995), 이창환(1998), 장영훈(2000), 이호일(2003) 등이, 건조물의 경우 김영빈(1990), 이영(1992)이, 석물의

Corresponding author: Jong-Hee Choi, Division of Environmental Design and Urban Horticultural Science, Paichai University, Daejeon 302-735, Korea, Tel.: +82-42-520-5918, E-mail: jhchoi2000@pcu.ac.kr

경우 유영교(1976), 배윤수, (1983), 이찬우(1985), 은광준(1992), 김성복(1992), 이진희(1997), 김은선(2006) 등이, 식생의 경우 이경재(1990, 1991)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능역의 외부공간에 대한 고찰은 다양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현존 조선 능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홍유릉 일원의 조영실제, 입지 및 공간구성을 고찰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홍·유릉(洪·裕陵)은 사적 제 207호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11,286m²로 약 37만평으로, 조선 제 26대 고종황제(高宗皇帝)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합장릉(合葬陵)인 홍릉(洪陵)과 순종황제(純宗皇帝)와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합장릉(合葬陵)인 유릉(裕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유릉(洪·裕陵)은 1919년 조영된 이래로 수라간(水刺間)³⁾의 위치가 변경된 것과 몇 차례의 부분적인 소규모 보수공사를 제외하면 조영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그림 1, 2, 3 참조).

2. 조사·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문헌조사는 홍·유릉(洪·裕陵) 업무 현황자료, 관련논문 등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결과는 홍유릉 일원의 조영실제, 물리적 구성형식에 대한 해석의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한편, 현지조사는 2007년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에서는 입지, 공간구성요소 등의 현황을 사진촬영, 관찰, 능원의 관리자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입지특성의 경우, 능원의 지형조건과 주변경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공간구성의 경우, 능역의 배치형식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요소는 능침(陵寢), 건조물(建造物), 지당(池塘), 점경물(點景物), 식생(植生) 등으로 구분, 조사 분석하였다(그림 4,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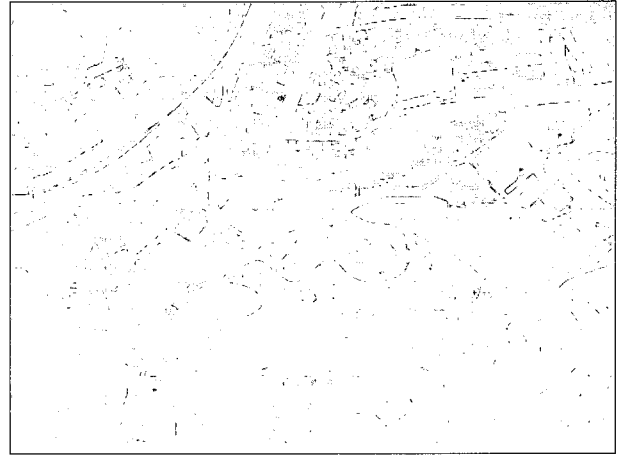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지 수치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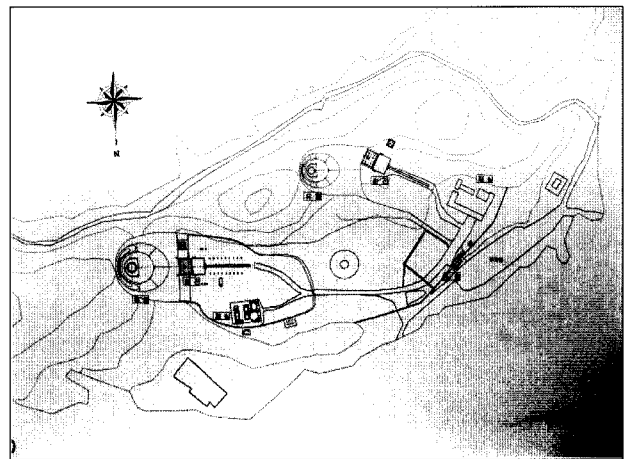


그림 5. 홍·유릉 배치도

III. 결과 및 고찰

1. 조영실제

홍유릉은 1897년 10월 조선의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면서 황제로 등극한 고종과 순종의 능으로, 홍릉 조영은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승하 후 1919년 1월 30일



그림 1. 연구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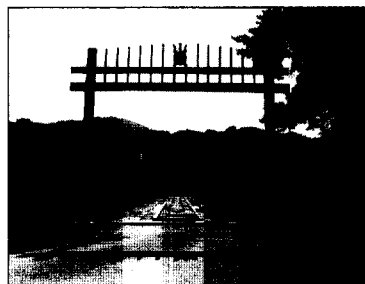


그림 2. 홍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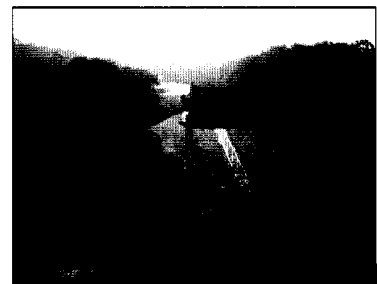


그림 3. 유릉 전경

표 1. 홍·유릉 조영연혁

구분	능역 조영	비고
1919.02.16	금곡리(金谷里)에 洪陵造營(明成皇后閔氏)	양주 천장산(청량리), 舊, 홍릉 천장
1919.03.04	홍릉 합장(高宗皇帝)	
1926.06.05	금곡리에 유릉 造營(純明皇后閔氏)	양주 용마산 내동(어린이대공원 내) 舊, 유릉 천장
1926.06.11	유릉 합장(순종황제)	
1966.02.13	유릉 합葬(繼妃, 純貞皇后 尹氏)	동봉삼실

산역(山役)을 시작하여 1919년 3월 4일 양주군 금곡리 을좌신향(乙坐辛向: 동쪽에서 서쪽 방향)의 언덕에 명성황후 민씨와 합장하여 조영하였으며, 유릉은 순종이 1926년 4월 25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 후, 1926년 6월 5일 양주 용마산 내동에서 금곡리로 천장한 원비 순명황후 민씨 유릉에 동년 5월 7일 산역을 시작하여 6월 11일 홍릉의 왼쪽 산출기 묘좌유향(卯坐酉向: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유릉에 합장하여 조영하였다(표 1 참조)⁴⁾.

2. 입지성

1) 위치적 특성

홍유릉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적산(妙寂山, 표고 589.9m)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서쪽으로 뻗은 능선 허리 해발 70m 부근 북서방향으로, 유릉은 홍릉 능침에서 좌측으로 뻗어나간 능선 300m 전방의 좌측 60m 부근 정서쪽 방향에 능침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9 참조). 풍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홍·유릉은 맥이 동쪽인 묘(卯)에서 입수(入首)⁵⁾하여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⁶⁾을 이루는 그 상부에 봉분이 을좌신향(乙坐辛向) 동에서 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6, 7 참조).

2) 주변 환경과의 관계

홍유릉 일원에는 왕숙천(王宿川), 구운천(九雲川), 묵현천(墨峴川) 3개의 큰 하천이 북한강 수계의 일부를 이루며, 홍유릉의 전면을 흐르는 홍릉천은 금곡동 돌짜고개 밑 골짜기에서 발원하며, 동북지역에는 주금산(813.6m), 축령산(879m), 천마산(812m), 운길산(610.2m)과 서쪽으로는 서울의 도봉산과 대치한 수락산(637m), 불암산(509m)이 위요하고 있으며, 중심부에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그림 8, 9 참조). 홍·유릉은 이중 천마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홍유릉 전면에는 일반국도 46호인 경춘 국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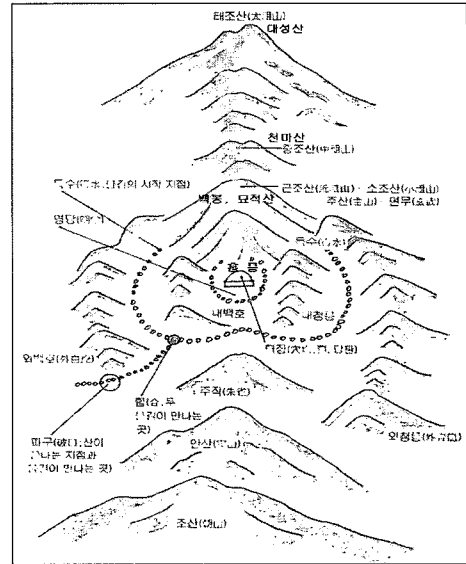


그림 6. 풍수지리 산세도



그림 7. 매화낙지형 국도
자료: 황중찬, 1996: 323



그림 8. 동여도 남양주 부근(19C 중엽)



그림 9. 홍유릉의 주변 환경
출처: Google Earth

3. 공간구성

홍유릉은 능의 공간위계를 따라 외부공간(진입공간), 반외부공간(전이공간), 내부공간으로 나뉘며, 홍살문, 침전, 장명등, 상석, 봉분이 공간축을 이룬다. 이에 외부공간은 홍살문 밖의 공간으로, 삼문, 양릉 중간에 위치한 원형의 석조지당(石造池塘), 유릉 어재실, 남측에 외재실(外齋室) 1동(棟), 금천교⁷⁾가 해당된다. 또한, 반 외부공간에는 홍살문과 침전 사이로 참도(參道)⁸⁾, 문(文)·무인석(武人石), 석수(石獸), 배위(拜位)가 위치하며, 내부 공간에는 구릉 위의 봉분 주위로, 봉분(封墳), 곡장(曲牆), 장명등(長明燈), 난간석(欄干石), 혼유석(魂遊石), 향로석(香爐石), 망주석(望柱石), 병풍석(屏風石)이 위치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0,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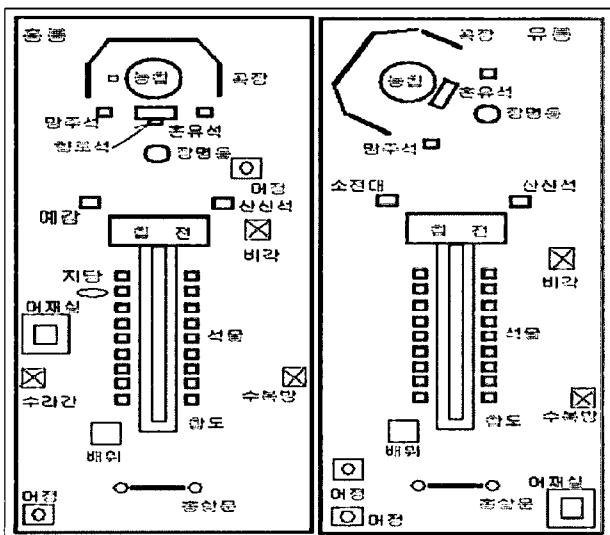


그림 10. 홍·유릉 배치도

1) 홍릉

홍릉은 능침이 동쪽에서 북서쪽(乙坐辛向)을 향하도록 배치한 동원(同園) 합장릉(合葬陵)으로, 능침 뒤로는 3면의 곡장을 설치했으며, 능침 주변의 평탄한 지형은 횡방향의 장대석 놓아 상·하 2단으로 나누고 있다. 상계에는 반구형(半球形)의 능침과 화문(花紋)이 조각된 12면의 병풍석을 설치하였다. 능침 둘레로는 12칸의 난간석을 들렀으나, 능침 좌우측에 망주석을 세우고 능침을 수호하는 석양(石羊)과 석호(石虎)는 설치하지 않았다. 능침 전면에는 혼유석 1개, 향로석 1개가 놓여 있으며, 하단에는 장명등 1개만 배치하였다. 또한, 능침이 끝나는 부분은 급경사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침전우측에 곡장을 두른 어정이 있고 화강석을 사각으로 다듬어 놓은 산신석(山神石)이 있으며, 산신석이 있는 반대 위치에 정방형의 화강석을 놓고 윗면을 사각으로 구멍을 판 예감(瘞坎)⁹⁾을 배치하였다. 또한, 홍릉은 황제릉양식에 따라 정자각(丁字閣) 대신 일자각(一字閣)의 침전(寢殿) 건물을 세우고 3행(三行) 참도를 설치하였으며, 홍살문을 통과하면 참도 좌측에 능을 출입하는 양이 절을 올리는 배위가 있으며, 참도는 침전 월대의 계단과 연결되어 침전 월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침전 좌측으로 비각이 배치되고, 참도를 중심축으로 침전과 홍살문 사이에 좌우측으로 수복방과 수라간이 있다. 석물의 배치는 침전에서 홍살문까지 참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문(文)·무인석(武人石),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석양, 석마모양의 석물이 각 1쌍씩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석마는 2쌍이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 밖으로는 금천(禁川)이 흐르고 그 위에 금천교(禁川橋)를 놓았으며, 금천교에서 산 방향으로는 돌레석만 남아 있는 어정 하나가 있다.

2) 유릉

유릉의 경우, 삼문을 통과해 우측에 있는 석교를 통과하면서 진입로 좌측으로 곡장이 없는 어정과 곡장을 설치한 어정이 위치한다. 또한, 홍살문에서 남서쪽으로 어재실(御齋室)이 있으며, 현재 유릉 어재실(裕陵 御齋室)은 홍·유릉관리소로 사용하고 있다. 유릉능침은 정동에서 정서(即坐酉向)방향에 배치한 동원삼실 합장릉으로, 홍릉과 배치형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능침 사초지 아래 경사면 우측에 있는 예감은 화강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종묘 정전의 서북쪽에 배치되어 있는 같은 형태로 전돌로 축조한 소전대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4. 공간구성요소

1) 능침(陵寢) 및 석물(石物)

(1) 능침¹⁰⁾

표 2. 홍 · 유릉의 배치형식

구분	홍릉	유릉	일반왕릉	비고		
배치형식 (向)	곡장(曲牆)	곡장(曲牆)	곡장(曲牆)	홍살문에서 능침까지, 일직선축을 이루고 있음.		
	능침(陵寢)	능침(陵寢)	능침(陵寢)			
	침전(寢殿), 비각(碑閣)	침전(寢殿), 비각(碑閣)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참도(參道, 3道), 문·무인석(文·武人石), 석수(石獸)	참도(參道, 3道), 문·무인석(文·武人石), 석수(石獸)	참도(參道, 2道)			
	수라간, 수복방(守僕房)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수복방(守僕房)			
	홍전문(紅箭門)	홍전문(紅箭門)	배위(拜位)			
	어재실(御齋室)	금천교(禁川橋)	홍전문(紅箭門)			
	금천교(禁川橋)	어재실(御齋室)	금천교(禁川橋)			
	지당(池塘(2))	-	-			
공간 구성	능상 구역	성역 공간	상계절	곡장(曲牆)	곡장(曲牆)	조선 영조의 원릉부터 하계절이 생략되고, 중계절에 문·무인석을 함께 배치함.
			능침(陵寢)	능침(陵寢)	능침(陵寢)	
			혼유석(魂遊石)	혼유석(魂遊石)	석호(石虎), 석양(石羊)	
			향로석(香爐石)	-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망주석(望柱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장명등(長明燈)	장명등(長明燈)	
		중계절	-	-	문인석(文人石)	
		-	-	-	석마(石馬)	
		-	-	-	무인석(武人石)	
		-	-	-	석마(石馬)	
		하계절	어정(御井, 齋井)	-	-	
		산신석(山神石)	산신석(山神石)	산신석(山神石)		
	예감(饗坎)	소전대(燒錢臺)	예감(饗坎) / 소전대(燒錢臺)			
	신교(神橋)	신교(神橋)	신교(神橋)			
	능하 구역	제향 공간	침전(寢殿)	침전(寢殿)	丁字閣	
			비각(碑閣)	비각(碑閣)	비각(碑閣)	
			참도(參道, 3道)	참도(參道, 3道)	참도(參道, 2道)	
			문·무인석, 석수(文·武人石, 石獸)	문·무인석, 석수(文·武人石, 石獸)	-	
수라간,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수복방(守僕房)		
배위(拜位, 左側)			배위(拜位, 左側)	배위(拜位, 右側)		
진입공간		어재실(御齋室)	어정(御井, 齋井)	-		
		홍전문(紅箭門)	홍전문(紅箭門)	홍전문(紅箭門)		
		금천교(禁川橋)	금천교(禁川橋)	금천교(禁川橋)		
		지당(池塘)	어재실(御齋室)	지당(地堂)		
	어정(御井, 齋井)	어정(御井, 齋井)	재실(齋室)			
	삼문(三門)	삼문(三門)	-			

홍 · 유릉의 능침은 반원형이며, 능침 하단에는 12면의 병풍석과 12칸의 난간석을 설치하고 면석(面石)에 화문(花紋)을 장식하였다. 병풍석은 조선 왕릉을 조성할 때 능침에 사용되는 석물 중 하나로 세조의 유명(遺命)에 따라 묘제에서 사라졌으나, 정조가 축조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유릉(隆陵)에 난간석(欄干石) 없는 병풍석이 설치된 이후 황제릉으로 조성된 고종

과 순종의 홍유릉에서 다시 병풍석이 사용되었다(그림 11, 12 참조).

(2) 석물

홍 · 유릉은 석물의 배치, 종류, 규모에 있어서 일반 왕릉과 다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릉 능침을 수호하는 석양(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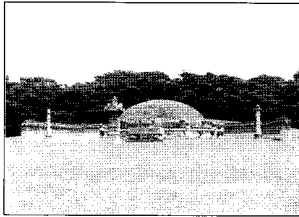


그림 11. 홍릉 능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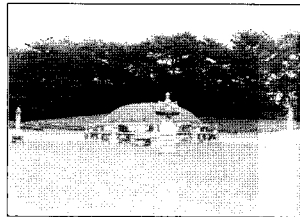


그림 12. 유릉 능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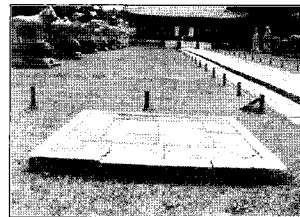


그림 17. 홍릉 배위 판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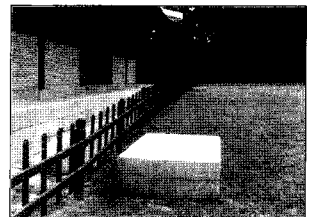


그림 18. 홍릉 산신석

羊)과 석호(石虎)가 생략되었으며 향로석(香爐石)은 홍릉의 혼유석(魂遊石) 앞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제향에 사용한 축문을 태우는 장소인 홍릉의 예감(瘞坎)은 유릉의 것과 재질과 양식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홍릉의 예감은 화강석을 장방향으로 다듬어 놓을 것을 사용하였으며, 유릉의 소전대는 종묘의 정전에 있는 소전대와 같은 형태로 전돌을 쌓아올린 굴뚝형태를 하고 있다. 석인(石人)·석수(石獸)는 상설물에 있어 황제릉과 일반 왕릉과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침전과 홍살문 안쪽에 조성된 참도를 중심으로 좌우 1쌍씩을 대칭하여 배치하였다. 홍릉과 유릉의 석물들은 각각 다른 조형기법과 입체감이 다른 특색을 갖고 있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문·무인석은 홍릉이 유릉보다는 크게 설치되었고, 나머지 석수는 유릉이 전반적으로 크게 설치되었다. 석물 종류와 수량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석양은 각 1쌍씩을, 석마는 2쌍을 홍·유릉이 모두 같이 설치하였다. 홍·유릉의 참도는 홍살문에서 침전까지 일직선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신도와 어도 바닥은 넓은 돌을 쪼갠 '박석(薄石)'이라는 돌을 올려놓았으며 중앙에 높게 신도를 설치하고 신도보다 낮은 좌우에는 어도를 설치한 3행 참도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그림 13, 14, 15, 16, 17, 18 참조).

2) 건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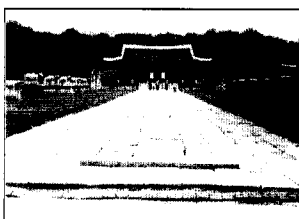


그림 13. 홍릉 참도와 석물



그림 14. 홍릉 혼유석 향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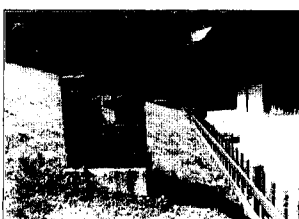


그림 15. 유릉 소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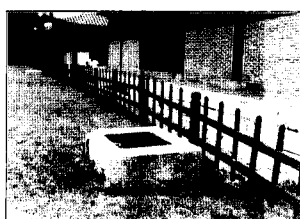


그림 16. 홍릉 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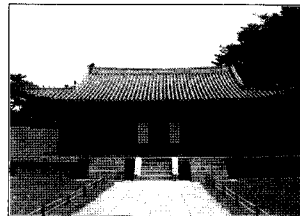


그림 19. 홍릉 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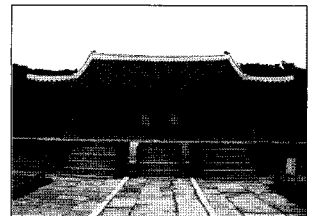


그림 20. 유릉 침전

(1) 침전¹¹⁾

홍·유릉 침전은 건물의 형식과 규모가 조선시대 왕릉에서 볼 수 있는 정자각(丁字閣)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에 팔작지붕의 일자각(一字閣)인 침전 건물을 세웠다. 기단은 장대석 쌓고 기단 바닥과 침전의 내부는 전돌을 깔았다. 또한,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정자각의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면에 설치되어 홍살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침전 건물은 홍릉과 유릉에 각 1동씩을 능침 경사면 아래 배치되어 있다(표 4, 그림 19, 20 참조).

(2) 비각

홍·유릉의 비각은 침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익공의 팔작기와집이며, 내부 바닥은 전돌로 구성되어 있다. 홍릉 비각 중앙에 배치한 비면에는 전서체의 글씨로 '대한 고종태황제홍릉, 명성태황후부좌'라고 새겨 있으며, 1937년 3월에 세운 것이다. 유릉비면에는 "대한 순종효황제 유릉 순명효황후 부좌 순정효황후 부우"라고 전서체로 새겨져 있다(표 4, 그림 21, 22 참조).

(3) 수복방(守僕房) 및 수라간

홍릉은 홍살문 북쪽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수라간과 남쪽에 수복방(守僕房)¹²⁾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릉에는 수복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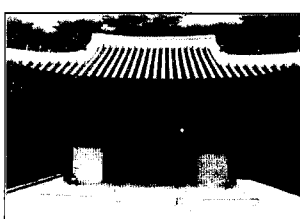


그림 21. 홍릉 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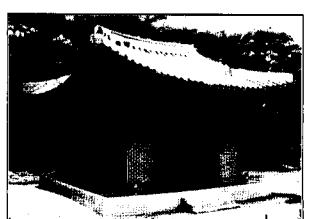


그림 22. 유릉 비각

표 3. 홍·유릉 능침 및 상설현황

(단위: m)

구분	홍릉	유릉	비고
능침(陵寢)	높이 4.5, 폭 11.6, 둘레 30	높이 4.5, 폭 12.1, 둘레 31	
곡장(曲牆)	둘레 54.4, 높이 2.2	둘레 51.1, 높이 2.2	
병풍석(屏風石)	높이 1.66, 둘레 30.7	높이 1.67, 둘레 31.1	
난간석(欄干石)	총 둘레 38.2, 석주 높이 1.6, 석난간 폭 2.8, 동자주 높이 0.69	총 둘레 38.44, 석주높이 1.5, 석난간 폭 2.8, 동자주 높이 0.61	
혼유석(魂遊石)	가로 2.74, 세로 1.72, 두께 0.53	가로 2.7, 세로 1.65, 두께 0.51	
고석(鼓石)	둘레 0.73, 높이 0.49	둘레 0.64, 높이 0.5	
향로석(香爐石)	가로 0.77, 세로 0.49, 두께 0.6	-	
망주석(望柱石)	높이 3.03, 폭 0.3	높이 3, 폭 0.3	
장명등(長明燈)	높이 2.8, 폭 0.4	높이 2.75, 폭 0.6	
예감(瘞坎)/ 소전대(燒錢臺)	가로 1.06, 세로 0.91, 높이 0.4	가로 0.7, 세로 0.8, 높이 0.92	
산신석(山神石)	가로 1.42, 세로 1.04, 높이 0.52	가로 1.29, 세로 0.89, 높이 0.42	
신교(神橋)	가로 0.94, 세로 1.29	가로 1.08, 세로 1.20	
참도(參道)	길이 57.0, 폭 6.33	길이 50, 폭 4.03	
문인석(文人石)	가로 0.82, 세로 0.78, 높이 3.3	가로 1.19, 세로 1.16, 높이 3.1	1쌍
무인석(武人石)	가로 0.66, 세로 0.59, 높이 3.41	가로 1.19, 세로 1.16, 높이 3.2	1쌍
기린	높이 1.06(좌대 0.75×1.63×0.77)	높이 1.55(좌대 0.99×1.76×0.74)	1쌍, 좌대 규격 동일
코끼리	높이 1.02	높이 1.5	1쌍
해태	높이 1.05	높이 1.63	1쌍
사자	높이 1.1	높이 1.5	1쌍
낙타	높이 1.05	높이 1.76	1쌍
석마(石馬)	높이 1.1(좌대 생략)	높이 1.68	2쌍
배위(拜位)	가로 2.47, 세로 2.47	가로 2.45, 세로 2.47	
홍전문(紅箭門)	높이 5.9, 폭 5.74, 둘레 0.33	높이 5.6, 폭 5.73, 둘레 0.33	
금천교(金川橋)	가로 6.9, 세로 2.76	가로 5.5, 세로 2.15	
지당(池塘)	직경 53(섬 직경 12)	-	
소 지당(小池塘)	가로 11.3, 세로 5.3(타원형)	-	홍릉 침전 앞
어정(御井)	직경 1.2, 담장 높이 1.5, 길이 22.5	직경 1.0, 담장 높이 1.61, 길이 19.8	

남아 있으며, 건물 뒤쪽에 대청마루가 놓여있다(표 4, 그림 23, 24, 25, 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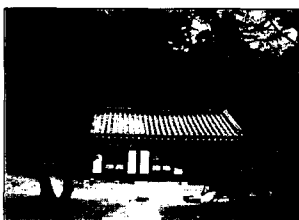


그림 23. 홍릉 수복방 전면



그림 24. 홍릉 수복방 배면



그림 25. 유릉 수복방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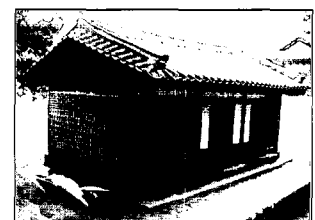


그림 26. 유릉 수복방 배면

표 4. 홍·유릉 건조물 현황 (단위: m²)

구분	건물명	면적 및 구조	건물 동수	비고
홍릉	침전(寢殿)	224 팔작지붕, 이익공 건물	1	
	비각(碑閣)	47 팔작지붕, 이익공 건물	1	
	수복방(守僕房)	28 맞배지붕	1	
	수라간	27 맞배지붕	1	
	어재실(御齋室)	본채 85.63(정면 7칸, 측면 2칸) 행랑채 85.63(정면 11칸, 측면 1칸) 뒷채 81.64(정면 9칸, 측면 1칸) 담장 76.3m	-	
유릉	침전(寢殿)	222 팔작지붕, 이익공 건물	1	
	비각(碑閣)	46 팔작지붕, 이익공 건물	1	
	수복방(守僕房)	27 맞배지붕	1	대청
	수라간	-	-	
	어재실(御齋室)	본채 178.42(정면 14칸, 측면 2칸) 행랑채 138.2(정면 21칸, 측면 1칸) 제기고 18.13(정면 3칸, 측면 1칸) 담장 119.65m	-	
홍·유릉	외재실(外齋室)	165.12	1	
	삼문(三門)	45.58(13.78평) 정면 3칸, 측면 2칸 (우진각지붕, 겹처마)	1	

(4) 홍살문

홍살문¹³⁾은 신성한 곳을 알리는 문으로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각각의 등근 주초석(柱礎石)에 2개의 기둥을 세워 붉은 칠을 하고 상단부의 기둥과 기둥사이를 인방을 연결하여 살을 박아 놓았다. 홍살 중앙에는 오방색의 삼태극의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표 4, 그림 27, 28 참조).

(5) 어재실

홍릉의 어재실¹⁴⁾은 침전에서 북서쪽에, 유릉의 어재실은 침전과 홍살문의 일직선축에 위치하고 있다. 어재실은 본채, 행랑채, 그밖에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구획은 행랑채의 외벽과 사고석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재실 본채에서 행랑채를 거치지 않고 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홍릉 재실은 남측면에, 유릉은 동측 협문을 만들고, 참배로가 침전까지 설치되



그림 27. 홍릉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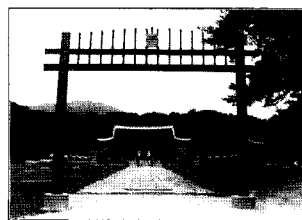


그림 28. 유릉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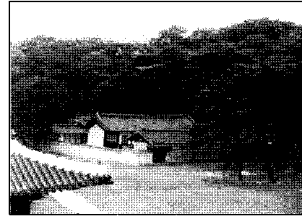


그림 29. 홍릉 어재실 전경



그림 30. 유릉 어재실 전경

어 있다(표 4, 그림 29, 30 참조).

3) 식생

홍·유릉일원 식생은 산지 낙엽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혼효림으로 임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낙엽활엽수인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uth.)와 침엽수인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가 우점하고 있다. 홍·유릉의 주산인 묘적산의 식생은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uth.), 잎갈나무(*Larix gmelini* var. *principisruprechtii*), 은사시나무(*Populus tomentiglandulosa* T. Lee),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 싸리(*Lespedeza bicolor* Turcz.),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 et Zucc.) 등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연지 주변으로 오리나무(*Alnus japonica* Steud.)가 연못과 삼문 주변에는 대경목의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Linnaeus)가 분포하고 있다. 능침공간은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조립수종으로 잣나무,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 독일가문비(*Picea abies* Karsten)가 홍릉 홍살문까지 가로수 형식으로 식재되어 있다. 삼문 안쪽과 수로에는 개나리(*Forsythia koreana* Naki)와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철쭉, 무궁화 등의 화목이, 이밖에 제비꽃, 흰민들레, 서양민들레, 양지꽃, 현호색, 맥문동, 쇠뜨기, 고비 등의 초본류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유릉 재실 뒤에서 외곽 담장 쪽으로 150m 정도 가다보면 검은 돌의 표석(表石)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전면에는 조선상민봉도단기념식송비(朝鮮商民奉悼團紀念植松碑)라고 적고 후면에는 소화 2년 3월 기념적송49주(昭和二年紀念赤松四拾九株)라는 음각 글씨로 새긴 기념식송비가 세워져 있다(표 5, 그림 31, 32 참조).



그림 31. 홍릉 어재실 협문의 향나무



그림 32. 조선상민봉도단기념식송비

표 5. 홍·유릉의 식생 현황

구분	수종별(학명)	비고
삼문- 홍살문	소나무(<i>Pinus densiflora</i> Sieb. et Zucc.), 오리나무(<i>Alnus japonica</i> Steud.), 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L.), 상수리(<i>Quercus acutissima</i> Carruth.), 잣나무(<i>Pinus koraiensis</i> Sieb. et Zucc.), 수양벚나무(<i>Prunus leveilleana</i> var. <i>pendula</i> Nakai), 벚나무(<i>Prunus yedoensis</i> Matsumura), 버드나무(<i>Salix koreensis</i> Anderss), 백송(<i>Pinus bungeana</i> Zuccarini et Endlicher), 참빗살나무(<i>Euonymus sieboldiana</i> Blume), 산딸나무(<i>Cornus kousa</i> Buerger), 단풍나무(<i>Acer palmatum</i> Thunberg), 밤나무(<i>Castanea crenata</i> Siebold et Zuccarini), 무궁화(<i>Hibiscus syriacus</i> Linnaeus), 독일가문비(<i>Picea abies</i> Karsten), 스트로브잣나무(<i>Pinus strobus</i> Linnaeus), 진달래(<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개나리(<i>Forsythia koreana</i> Naki), 철쭉(<i>Rhododendron poukhanense</i> Lev.)	
침전- 홍살문	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L.), 보리수(<i>Elaeagnus umbellata</i> Thunberg), 두릅나무(<i>Aralia elata</i> Seemann), 갈참나무(<i>Quercus aliena</i> Blume), 쪽동백나무(<i>Styrax obassia</i> Siebold et Zuccarini), 느티나무(<i>Hibiscus syriacus</i> Linnaeus), 전나무(<i>Abies holophylla</i> Maxim.), 잣나무(<i>Pinus koraiensis</i> Sieb. et Zucc.), 소나무(<i>Pinus densiflora</i> Sieb. et Zucc.)	
침전- 능침	소나무(<i>Pinus densiflora</i> Sieb. et Zucc.), 잣나무(<i>Pinus koraiensis</i> Sieb. et Zucc.)	

4) 지당

홍릉과 유릉 능역 중간사이의 지당은 원지(園池) 형태로 연못 한가운데에는 사고석을 쌓고 장대석 1단을 올려 둥근 섬을 조성하였으며, 누운 소나무와 향나무가 재식되어 있다. 조선 왕릉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지형태의 지당이 아닌 원지 원도(園池圓島)형태이다. 또한, 홍릉침전 앞에는 고사된 버드나무와 담수 없는 타원형의 작은 지당이 조성되어 있다(그림 33, 34 참조).

5) 점경물

홍·유릉 능침 공간에 배치한 석물로는 망주석(望柱石) 1쌍, 혼유석(魂遊石) 1기, 장명등(長明燈) 1기와 제향공간인 침전 앞부터 홍살문까지 문·무인석(文·武人石),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석마(石馬) 순서로 석물 배치하고 있다(그림 35, 36 참조).



그림 33. 홍·유릉 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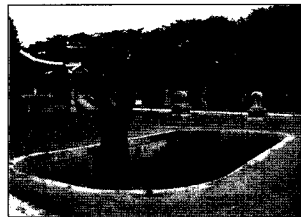


그림 34. 홍릉 침전 앞 소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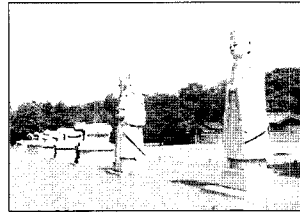


그림 35. 홍릉 문·무인석과 석수



그림 36. 유릉 문·무인석과 석수

5. 고찰

1) 입지환경

홍·유릉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범위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왕릉을 조성할 때는 도성인 한양을 중심으로 십리(4km) 밖 백리(40km)이내에 입지하도록 했던 묘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묘적산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홍릉은 능선 허리 해발 70m 부근 북서방향에, 유릉은 홍릉능침에서 좌측으로 뻗어나간 능선 300m 전방의 좌측 60m 부근 정서쪽 방향으로 능침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홍·유릉 출입을 위해 능역 서쪽에는 삼문을 두었고 삼문 앞과 하천 주변에는 노거수인 소나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능역의 신성한 곳임을 상징하거나 비보사상(裨補思想)이 담겨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능역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풍수지리상 왕릉 입지체계에 따른 배산임수의 기본적인 자연경관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2) 배치형식

조선시대 왕릉은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능상(陵上)과 능하(陵下)로 구분하며, 배치는 주산-봉분-장명등-정자각-참도-홍살문을 잇는 직선축을 성역공간, 제향공간, 진입공간으로 나누어 능역의 공간을 세분하는(이창환, 1998) 바, 홍·유릉은 능침에서 침전 신교까지를 성역공간(능상구역)이라 볼 수 있고, 홍살문에서 침전까지를 제향공간(능하구역)으로, 홍살문밖 금천교, 어계실, 삼문 공간을 진입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황제의 능제로 조영한 홍·유릉과 일반 왕릉과의 공간별 주요시설의 배치 현황을 보면 제향공간에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혼유석과 장명등, 망주석을 제외한 상설물 등은 침전 앞으로 배치되었으며, 기존의 왕릉의 석물의 종류, 규모, 모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석양, 석호는 성역공간과 제향공간에서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명나라 태조의 효릉을 조성할 때 중국의 능침제도를 개혁하는 시기로 소형의 석물 석양, 석호가 폐지되고 능묘를 방형에서 원형으로 고치는 능침제도가 바뀌었는데(양관, 2005)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황제 능침제도를 따라 조영한 홍릉과 유릉의 2개 능의 전체 배치형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이나, 홍릉의 경우 혼유석 앞에는 향로석을 배치하였고, 유릉은 향로석 없이 혼유석 1기만 배치하였다. 또한, 홍릉은 능침과 침전, 홍살문이

일직선축으로 이루고 있어 외부에서 능침공간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였다면, 유릉은 능침과 침전이 축을 각기 다른 향으로 배치하였다. 침전에서 홍전문까지 일직선축으로 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참도는 높낮이를 달리하여 3도로 조성되어 있다. 홍전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방향의 배위가 있는 일반 왕릉의 배치와 달리 홍·유릉에서는 모양을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위치상으로는 좌측으로 배위가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홍·유릉의 침전과 석물의 종류 등 배치와 형식에 있어서는 명태조의 효릉 묘제 양식 준용하면서도 능상의 곡장, 병풍석, 12지의 방위를 음각한 석주와 난가석, 혼

유석, 망주석, 장명등의 배치 양식은 조선시대 기본 능제를 따른 조선시대 독특한 황제능제라 할 수 있다(표 6, 7 참조).

3) 지당

홍릉 침전 좌우측부터 시작되는 자연 수로는 연못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연히 흐르는 물은 연못 한 곳으로 모이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물이 넘쳐 암거 배수구를 거쳐 노출된 수로를 따라 삼문 밖 하천으로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다. 지당 주변은 우리나라가 균락을 이루고 있는데 원래 연못지역은 수계와 인접하여 담수 공급이 원활한 곳이나 물이 나는 습지로 자연적인

표 6. 홍·유릉과 일반 왕릉과의 공간별 주요 시설

구분	홍·유릉	일반 조선왕릉
진입공간	외재실(外齋室), 삼문(三門), 금천교(金川橋), 금천(禁川), 참배로(參拜路), 어재실(御齋室), 지당(池塘)	재실(齋室), 지당(池塘), 금천교(金川橋), 금천(禁川)
제향공간	침전(寢殿), 참도(參道, 3行道), 석물8종 18기(문·무인석,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각 1쌍, 석마 2쌍), 배위(拜位),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어정(御井, 齋井), 홍전문(紅箭門), 비각(碑閣)	정자각(丁字閣), 참도(參道, 2行道), 배위(拜位),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홍전문(紅箭門), 비각(碑閣)
성역공간	곡장(曲牆), 봉분(封墳), 망주석(望柱石),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향로석(香爐石, 홍릉), 어정(御井), 산신석(山神石), 예감(揆坎, 燒錢臺)	곡장(曲牆), 봉분(封墳), 석양(石羊), 석호(石虎), 망주석(望柱石), 혼유석(魂遊石), 장명등(長明燈), 문·무인석(文·武人石), 석마(石馬), 산신석(山神石), 예감(揆坎), 소전대(燒錢臺)

표 7. 홍·유릉과 명태조 효릉, 일반 조선 왕릉과의 비교

구분	홍·유릉	명 태조(효릉)	일반 조선왕릉	비 고	
능침형태(陵寢形態)	원형	원형	원형		
건조물	침전(寢殿)	향전(享殿)	정자각(丁字閣)		
참도(參道)	3道	3道	2道		
상설종류	3면곡장(曲牆)	○	×	○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등의 석물들은 조선조 제 25대 철종의 예릉(睿陵)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음
	혼유석(魂遊石)	○	×	○	
	망주석(望柱石)	○	×	○	
	문인석(文人石)	○	○	○	
	무인석(武人石)	○	○	○	
	석호(石虎)	×	×	○	
	석양(石羊)	×	×	○	
	기린	○	○	×	
	코끼리	○	○	×	
	해태	○	○	×	
	사자	○	○	×	
낙타	○	○	×		
石馬	○	○	○		
석물공간배치	능상(陵上)·능하(陵下) 구역에 배치	능하(陵下) 구역에 배치	능상(陵上) 구역에 배치		

형태에서 돌을 쌓아 지당을 조성하고 목적에 따라서는 휴식공간이나 방화수 기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풍수사상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때 능역 앞이 터져 있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물을 얻고 바람을 막아 명당 혈의 생기를 잡아두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원리인 비보(裨補) 차원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점경물

홍·유릉의 점경물로는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석물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석물은 일반 양릉과 다른 시대적, 시각적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석물의 종류, 규모, 배치가 특징적이다. 능침공간에 있던 석양, 석호는 사라지고 능침공간에 배치되어 있던 문·무인석과 석마를 침전 앞으로 배치하면서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각 1쌍과 석마 2쌍 순으로 석물의 종류 규모가 늘어났다. 홍·유릉의 문인석의 경우 머리에 쓰고 있는 사모관(紗帽冠)의 형태가 금관모양으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는 18세기 후반의 조영된 용·건릉과 수릉(綏陵)¹⁵⁾의 문인석에서도 금관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석물들은 조선왕릉 전기·중기·후기의 능제 석물 변천과정뿐만 아니라(표 8 참조),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국가의 능침제도에 따른 석물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가치 있는 점경물들이라 사료된다.

5) 식생

홍릉의 능침 주변은 소나무가 감싸고 있으며, 소나무는 능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홍·유릉 외부 진입로인 주차장 주변에도 노송들이 몇 그루 남아 있다. 침전 앞과 홍살문까지의 제향공간의 배식형식을 살펴보면 노거수인 향나무가 침전

앞과 어재실, 협문, 수복방 그리고 진입공간으로는 삼문 기둥 양쪽에 대칭되게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향공간과 전체적인 능역공간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지 주변은 오리나무가 군락이 습지와 조화를 이룬 식생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연못과 삼문 주변에는 흉고직경이 70cm 이상 되는 대경목의 스트로브잣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스트로브잣나무는 북미 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1920년경에 도입된 수종으로 1919년과 1926년에 조영된 홍·유릉의 외부 능역공간에 빈약한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폐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식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홍·유릉 조성과 함께 식재한 역사경관 수종으로 사료된다. 홍릉 진입로 주변으로는 잣나무, 독일가문비, 전나무가 열식으로 배식되어 있으며, 홍릉 능역 주변에는 향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보리수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참빗살나무, 쪽동백, 밤나무, 드릅나무 등이 관찰되었다. 유릉의 능침 주변은 노송인 소나무가 감싸고 있으며, 유릉 역시 홍릉과 인접한 지형에 위치하므로 유사한 식생현황 및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홍·유릉 삼문 안쪽의 진입공간에서는 소나무, 벗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외부공간인 주차장 주변은 소나무, 향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목련, 두충나무 등이 배식형태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홍릉 침전 앞 소연지와 유릉 홍살문 밖에 오래된 버드나무 2주가 있었으나 홍릉 능역에 있는 것은 고사되었고, 유릉에 버드나무는 원줄기는 고사된 채 근부에서 맹아가 자라나오고 있어 역사경관수목에 대한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표 8. 조선 초기·중기·후기 묘제 비교

구분	내용	비고
전기 (14세기~ 16세기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초기 왕릉은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음 조선 태조 건원릉(健元陵)은 조선왕릉 조영의 기틀이 됨 국조오례의 표본이 되는 英陵(세종)은 조선왕릉 병풍석의 기본을 확정하고, 혼유석의 고석을 5개에서 4개로 축소 光陵(세조)은 조선 초기 왕릉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옴 -병풍석을 없애고 난간석만 설치하고 석실 대신 회격으로 설치(세조의 遺命을 따름) -능제를 마친 후 축문을 태우는 "소전대"를 설치 3대 獻陵(태종) 이후 "예감"으로 대체 	
중기 (16세기 후반~ 18세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적 통치사상(실학)과 정치적 영향으로 능제 변화 명릉(明陵)부터 숙종(肅宗)의 명에 따라 간소화한 능 조영 -석물의 규모를 실제 사람 크기에 맞게 조영 -장명등 팔각옥개가 사각옥개로 변화 	
후기 (18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적 통치사상과 왕권 강화로 능제 변화 능원 조각물의 규모가 커지고, 능침 공간의 변화 조선조 21대 元陵(영조)부터 능침 앞 평지에 낮았이를 둔 상·중·하 삼계절 중 하계절이 사라지고 중계절에 문·무인석을 같은 위치에 배치 제 26대 고종과 27대 순종은 중국 황제 묘제로 조영 -정자각 대신 일자각인 침전 세움 -석양, 석호가 사라지고 침전과 홍살문 사이에 문·무인석,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석마 순으로 석물을 배치 	

IV. 결론

본 연구는 일본에 의한 강제 한일합병으로 국권이 상실된 정치적 혼란기에 조성된 조선시대 마지막 왕조 왕릉이면서 황제릉인 홍·유릉 조영과 경관특성에 대해 구명하고,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유릉의 입지는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범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능원묘제에 따른 거리기준(40km)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능역의 조영은 황제의 묘제를 따라 조영하였으나 조선의 왕릉은 한양의 도성 밖 100리 안에 두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거리나 위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조선시대 일반 왕릉묘제도 반영하였으며, 풍수사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능 터로 선정된 곳으로 천마산을 안산으로 삼고 백봉을 주산(主山)으로 하는 매화낙지(梅花落地)형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홍·유릉의 공간배치는 능의 공간위계를 따라 외부공간(진입공간), 반외부공간(전이공간), 내부공간으로 나뉘며 홍전문, 침전, 장명등, 상석, 봉분이 공간의 축을 이루며, 외부공간은 홍전문밖의 공간으로, 삼문, 양릉 중간에 위치한 원형의 석조지당(石造池塘), 양릉 어재실, 남측에 외재실 1동, 금천교가, 반외부공간은 홍전문과 침전사이로 신도와 어도, 석수, 배위가, 내부공간은 구릉 위의 봉분 주위로, 봉분, 곡장, 장명등, 난간석, 혼유석, 향로석, 망주석, 병풍석이 위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홍·유릉의 공간구성요소에는 석물의 경우 중국 명태조 황제묘제를 반영한 것으로 석양과 석호가 능침공간에서 생략되었으며, 건조물의 경우 정자각 대신의 일자각의 침전을 세웠다. 점경물의 경우, 능침공간에 있던 문·무인석을 침전 앞에 세우고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석마 순서로 석물을 배치하였으며, 문인석의 사모관(紗帽冠)은 금관형태로 바뀌었고 참도는 2도에서 3도의 참도로 구성되어 있다. 홍살문 안쪽의 참도가 시작되는 좌측에 정방형의 박석을 깔아 놓은 배위가 있는데 일반 왕릉과 반대 위치에 설치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당은 일반적으로 방지원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홍·유릉 지당은 원지원도(圓池圓島) 형태로 자연석을 다듬어 연못 둘레와 섬을 축대를 쌓아 조성한 것으로 인공 조형물의 석연지(石淵池)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넷째, 홍·유릉의 식생의 경우에는 능침지역에는 주로 노송들이 우점하고 있었으며, 제향공간에는 노거수 향나무가 단식으로 있고, 홍릉 삼문과, 침전, 어재실 협문, 수복방 등에 대칭의 향나무를 식재하였다. 향나무 이외에도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활엽수의 상수나무 벚나무가 분포하고 진입공간에는 조림수종과 향토수종, 화목류 등이 혼식과 열식으로 식재되어 있는데, 수종으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갈참나무, 벚

나무, 수양벚나무, 독일가문비, 진달래, 개나리, 철쭉 등이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홍·유릉 일대의 입지, 공간구성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홍·유릉은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양주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홍·유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황제릉이며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릉으로, 다른 조선 왕릉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역사적 보존 가치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홍·유릉 일원에 대하여 이러한 역사적 가치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조선 왕릉은 건국 초기에는 고려시대 능제를 원용하던 중, 세종 때 국조오례 중 흉례(凶禮)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면서 왕릉의 기본형식 등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왕릉 능원에는 3번의 곡장을 두르고, 석호·석양 각 2쌍, 문·무인석 각 1쌍, 석마 4마리, 망주석 1쌍, 장명등 1기, 혼유석 1위(位)당 1기 등의 석물 배치하였으며, 능침 앞에는 정자각과 홍살문을 세우고 두 건물 사이에는 참도(신도, 어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능침 수호관리와 제사를 위한 수라간, 수복방, 제실, 전사청, 향대청의 부속 건물들을 설치하였다.

주 2. 조선시대 왕릉은 태조 이성계의 간원릉을 비롯한 총 42기 중 40기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월(단종의 장릉)에 위치하며, 북한 개성에 2기(계릉, 후릉)가 있다. 능(陵)은 임금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왕족의 무덤은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 능(陵)·원(園)·묘(墓)로 구분하는데,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하고, 왕세자와 세자빈,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은 '원'이라 하며, 폐위된 왕이나 대군·군 또는 공주·옹주와 빈·귀인·후궁의 무덤을 '묘'라 한다.

주 3. 제향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된 건물.

주 4. 조선 왕릉은 조선 초기부터 구한말까지 능침봉제도를 두어 철저히 관리해 왔으며, 1945년 8.15 해방 이후 일본 공내성 소속 이왕직에서 왕실재산인 인수받아 미군정 관할 황실사무청으로 발족, 문화재관리업무를 관장하면서 1955년 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고, 1961년 7월 1일 황실재산사무총국 관리규칙 제1호로 양주산립보호구 금곡출장소가 개설되고 1961년 10월 황실사무총국이 문교부 외국의 문화재관리국으로 개편과 출장소를 금곡 산립보호구 금곡사무소로 승격,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보호관리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70년 1월 금곡지구 관리사무소로 개칭, 1970년 6월 26일 홍·유릉을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며 1973년 4월 25일 문화재보호구역 1,211,273m²를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청 산하 홍·유릉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 5. 풍수지리에서 산줄기의 정기가 모인 혈(穴)로 이어지는 곳.

주 6. 풍수형국(風水形局)에서 산세와 지세의 유형을 꽃에 비유한 것으로 매화꽃이 땅에 떨어진 듯한 형국.

주 7. 왕릉 앞에 흐르는 개울을 높여 금천(禁川)이라 하고, 이곳에 놓인 다리를 금천교(禁川橋)라 한다.

주 8. 향로(香路)라고도 하며, 참도는 신도와 어도로 구분하는데, 신도는 혼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길로 실제 제향 시에는 향, 축문을 운반 제관이 사용하며, 신도 옆 낮게 설치된 어도는 임금이나 현관이 다니는 길이다. 일반왕릉은 2도로 신도와 어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유릉은 황제 묘제 양식에 따른 것으로 신도 1개와 2개의 어도로 조성되었는데, 각각의 어도는 조공을 받치는 속국의 왕들이 참배하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한다(장영훈, 2000).

- 주 9. 산릉계례를 마친 후 축관이 축문을 불사르는 곳.
 주 10. 왕과 왕비의 무덤 이르는 용어로 능침 혹은 능상이라고도 불리며, 봉토와 사초로 조성된 반구형(半球形)으로서 민간의 묘제에서는 봉분, 분상, 산소, 무덤이라고 한다.
 주 11. 능에 제향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로 일반 왕릉에서 볼 수 있는 맞배지붕의 정자각 대신 홍·유릉은 황제묘제 양식에 따라 팔작지붕의 "일자각(一字閣)"형태의 침전 건물을 세웠다.
 주 12. 능을 수호 관리하는 수능군(守陵軍)이 근무하는 곳으로 사용한 건물.
 주 13. 홍살문은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문으로, 붉은 칠을 한 2개의 기둥을 능, 원 등의 앞에 세움.
 주 14. 종묘에는 어숙실(御瀟室)이란 건물이 있는데, 재궁(齋宮)이라고도 하며, 임금이 목욕을 하고 제례의복인 면복을 갖추는 등 제사 준비하는 곳이다. 북쪽엔 임금이 머무는 어재실이 있고, 동쪽에는 제사를 위한 세자 제실, 서쪽에는 어목욕청(임금이 목욕하는 건물)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어재실은 재실보다 규모나 기능면에서 품위를 갖춘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주 15. 수릉은 문조의 능으로 제 23대 순조의 뒤를 이어 문조의 아들 현종이 즉위하면서 현종은 부왕인 문조를 익종으로 추존함.

인용문헌

- 김성복(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조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영빈(1990)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 호성여대 연구논문집 8:26-30.
- 김은선(2006) 조선후기 왕릉석인 조각 연구. 미술사학 연구 249호.
- 목윤수(1988) 고려, 조선 능지. 서울:문성당.
- 문화재청(2007) 홍유릉관리소 업무현황자료.
- 배윤수(1983) 조선시대 왕릉 석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관(2005) 중국 역대 능침 제도. 서경.
- 유영교(1976) 조선왕조 후기 왕릉의 석인·석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광준(1992) 조선왕릉 석물지. 민속원.
- 이경재(1990) 왕릉식생경관 구조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2). 한국조경학회지 17(3):35-47.
- 이경재(1991) 왕릉식생경관 구조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3). 한국조경학회지 19(3):41-54.
- 이영(1992) 조선시대 왕릉능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진희(1997) 조선전기 능묘석물의 배치와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2):1-20.
- 이찬우(1985) 조선시대의 문무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환(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호일(2003)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 장영훈(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서울:대원미디어.
- 황중찬(1996) 新 풍수지리입문. 서울:좋은글.
- http://earth.google.com

원 고 접 수: 2007년 6월 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7년 8월 14일
 3 인 의 명 심 사 필